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 복음기도신문

## Gospel Prayer Newspaper

한국어판 [www.gnpnews.org](http://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http://english.gnpnews.org)  
일어판 [www.gnpnews.net](http://www.gnpnews.net)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십자가 사랑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성도를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과기도미디어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며 미디어로 열방을 섬기는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 한국교회와 단체들, 국가의 위기 앞에 기도로 일어나

CCC,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등 연속기도행진 이어가

최근 우리나라가 직면한 여러 혼란과 위기 속에서 교회와 단체들이 국가를 위해 기도하자고 제안하며, 연속기도에 돌입했다.

한국대학생선교회(CCC·대표 박성민 목사)는 11월 5일부터 12월 26일까지 ‘52일 비상기도대행진’을 갖기로 했다. CCC 간사와 학생들은 우리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하루 한 끼 금식과 매일 오후 1시에 52개의 기도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로 했다.

이 ‘52일 비상기도대행진’ 마지막 날인 12월 26일부터 29일까지는 전국 광역시도 단위로 원단금식수련회를 개최해 1만여 명이 개인의 경건과 캠퍼스 사역의 부흥,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할 계획이다.

박성민 목사는 ‘기도의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통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성시화운동본부(총재 김인중 목사, 공동총재 전용태 장로)도 10월 31일부터 12월 21일까지

‘느헤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 나 자신을 위한 52일 비상기도대행진’을 진행한다.

한편 성남 북정동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담임 유기성 목사)에서도 11월 8일부터 ‘나라를 위한 비상 금식기도’를 40일간 온 성도가 릴레이로 참여하여 진행한다.

또 대한노인회(회장 이십) 기독교신우회는 지난 1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범국민 구국기도회’를 개최했고, 언론인홍리클럽(수석부회장 김재원)도 8일 오전 7시 포항성시화운동본부 회의실에서 대통령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했다. [GNPNEWS]

그 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사무엘하 24:25)

**기도** |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조국의 상황들을 바라보며 모두가 절망하고 한숨 짓는 이때에 참된 소망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교회와 단체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완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옵소서. 주님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 복음기도 포토에세이

## 광야에 버려진 아사셀 염소처럼



- 이스라엘 광야에서

**저 멀리** 광야가 펼쳐져 있다. 지평선 끝의 산을 넘으면 다시 펼쳐질 또 다른 광야. 마실 물도 설만한 그늘도 없이 척박한 땅만 내려다보이는 산등성이에 야생 염소 아이백스 한마리가 홀연히 앉아있다. 마치 레위기 16장에서 제사장 아론에 의해 속죄제물로 드러지는 두 숫염소 중 한마리 같다. 제비를 뽑아 한 염소는 여호와께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로 불린 다른 한 염소는 무인지경(無人之境) 광야로 보내졌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죄를 뒤집어쓴 채, 아사셀 염소를 끌고 광야로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접근하기 어려운 땅까지 아주 멀리 나아가 염소를 놓고 돌아온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고 홀로 광야로 나아가 아사셀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늘 아버지께

게까지 끊어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짐을 지고 우리의 아사셀 염소가 되었다. 내 죄가 되셨다.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이사야 53:5) [GNPNEWS]



###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23)

## 좋은 일을 한다고 죄가 용서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 원한다. 이같이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모았다. 겨자씨선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가족들은 건강하고, 남부럽지 않은 재산에, 자식들도 성공하고, 배우자는 다정하고, 좋은 친구들이 주위에 있고, 게다가 주위에 속 썩이는 사람이 없는 당신. 사회에 좋은 일도 하고 기부도 해서 평판까지 좋군요. 조상도 잘 섬기고, 내세도 준비하고 있는 당신. 삶은 여유롭고 더 바랄 것 없이 이대로만

죽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당신에게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단지 한 가지 문제지만, 이것은 너무도 치명적이어서 결국 당신을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합니다. 바로 당신이 지은 죄입니다.

죄는 좀 지은 것 같지만, 사는 데 문제 된 적은 없으셨나요? 그래서 종교활동도 하고, 좋은 일도 하시나요? 좋은 일 한다고 지은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은 죄는 용서받아야 없어집니다. 누구한테 용서를 받아야 할까요? 죄를 지은 대상으로부터 용서

받아야 합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죄를 지은 것 같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지은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한 죄. 당신이 지은 모든 죄는 바로 이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당신의 주인 자리를 당신이 차지한 그때부터 당신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고 당신 자아를 숭배하며 오로지 자아 만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란 말인가? 다들 그렇게

못 살아서 난리인데.”라고 생각하시겠지요? 맞습니다. 난리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은 자아만족을 위해 투쟁하느라 생겨나는 것입니다.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세요.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십시오. 당신이 죄를 고백할 때, 당신 죄를 사하기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당신을 씻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진정 행복한 삶을 지금부터 영원히 누리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GNPNEWS]

### INSIDE

**02** 뉴스 | 한국 종교개혁 500주년 ‘경건의 열망’ 150일 기도... 내년 3월까지

**03** 기획 | 2016 금식기도성회 집회중계 “종교개혁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는 것”

**05** 인터뷰 | 전소정 집사 “주님의 공의가 세상에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06**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김용의 경건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한국

# 종교개혁 500주년 ‘경건의 열망’ 150일 기도…내년 3월까지

### 복음기도동맹, 금식기도성회 전세계 60여곳에서 인터넷 참여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경건의 열망’을 꿈꾸며 11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150일 연속기도가 시작됐다.

복음기도동맹은 종교개혁기념일인 지난달 31일 선한목자교회(유기성 목사)에서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금식기도성회에서 교회의 부흥은 한 사람의 심령의 부흥에서 시작된다는 마음으로 결단서에 서명하며, 이같은 연속기도

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기도에는 종교개혁 5대 강령을 기도정보로 재구성한 ‘경건의 열망’ 기도정보집이 사용된다.

이번 성회 참가자들은 또 성경을 읽고 말씀의 교훈에 순종하며,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은혜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에 참여하기로 하는 등 종교개혁 5대 강령의 실천사항을 담은 결단서에 서명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모두 기립한 채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이 ‘기념’으로 끝나지 않고 은혜로운 개혁의 불길이 치솟는 ‘기점’이 되게” 하며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경건의 열망으로 불타오르게 해주소서.”라고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금식으로 진행된 이번 성회는 종교개혁 5대 강령인 오직 성

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5가지 주제로 강사들의 말씀 선포와 기도시간으로 이어졌다.<관련기사 3면 참조>

또 이날 주제 강의 시간 사이에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각자의 삶에 결단할 내용을 기록하며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성회는 본 집회장뿐만 아니라 참석이 어려운 국내외 60여개 지역(국내 3곳, 38개국 60지역)에서 인터넷을 통한 영상으로 수천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 복음기도동맹 사무국에 따르면, 인터넷 사정이 어려운 국가의 신청자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인터넷이 가능한 곳으로 지역을 옮겨서 사모함으로 이 집회에 참여했다.

한 참가자는 “기도가 개혁의 시작임을 알게 됐다. 앞으로 일상으로 돌아가서 정말 기도에 목숨 걸고 살겠다.”고 고백했다. [GNPNEWS]

아시아

## 인도네시아 무슬림, 크리스천 주지사 반대 “퇴진” 요구

### “비무슬림이 코란을 인용한 것은 신성모독”

인도네시아의 유일한 크리스천 지도자인 자카르타 주지사 마수키 차하자 푸르나마가 최근 코란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약 9시간에 걸쳐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고 최근 외신이 전했다.

지난 9월 푸르나마 주지사는 자카르타 사우전드 아일랜드에서 “코란이 ‘비무슬림에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가르친다면, 이는 무슬림에게 거짓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4일(현지시간)에는 무슬림이 아닌 사람이 코란을 언급해 신성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자카르타 무슬림

단체인 이슬람방어전선(FPI)이 주도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금요 예배를 마친 무슬림 시위대 약 15만 명이 ‘신성모독죄를 범한 주지사를 처벌하라’고 외치며 주지사의 퇴진을 요구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신성모독은 최고 5년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로 간주된다.

이날 일부 참가자들이 화염병과 돌을 던졌고, 경찰은 최루가스와 물대포로 시위대의 해산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최루가스를 과도하게 들이마신 시위 참가자 1명이 사망했고, 양측에서 총 12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 약 10만명의 사람들이 시청 주위 거리를 활보하며 시위하고 있는 모습(출처: 알자지라 통신 캡처)

박해받는 크리스천을 위한 기구 오픈도어즈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크리스천 박해가 43번째로 극심한 국가다.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87%가 무슬림으로, 크리스천이 차지하는 비중은 8.8%에 불과하다. [GNPNEWS]

한국

## 제15회 청소년복음수련회 훈련생, 섬김이 모집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 15회 청소년복음수련회가 문광교회(최종덕 목사, 경기도 광주시)에서 2017년 1월 16일(월)부터 1월 20일(금)까지 4박 5일간 열린다.

참가대상은 중학교 2학년(2003년생)에서 고등학교 3학년(1998년

생)까지며 원서 접수 기간은 1월 23일(수)~12월 21일(수)까지다. 원서는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아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섬김이는 청소년복음수련회, 복음캠프 수료자, 복음학교 수료자 중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훈련생 모집 기간과 동일하다. 훈련생 회비는 3만원. 문의 ☎ 010-3380-5781, 010-7331-7710, 이메일: nngn777@naver.com, cafe.naver.com/youthgnr [GNPNEWS]

### 오늘의 열방 다이어스트 (10.23 ~ 11.10)

복음기도신문은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 ISIS, 모술서 ‘인간방패’로 284명 살해

이라크 모술을 점령 중인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IS)가 정부군 중심의 연합군 공격에 대항한다는 구실로 민간인 남성과 어린 소년들을 ‘인간방패’로 내세워 284명을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 정보기관 소식통을 인용해 CNN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나님, ISIS가 거룩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앞잡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 프랑스 난민촌 철거 첫날 2300명 이동…미성년은 ‘방치’

프랑스 칼레의 난민촌이 철거에 들어간 첫날인 24일(현지시간) 2300여 명의 난민이 이곳을 떠났다고 영국 인디펜던트가 보도했다. 칼레의 난민들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버스에 올라 프랑스 전역의 80개 수용소로 분산 배치됐다. 그러나 약 1300명에 이르는 부모 미동반 미성년 난민들의 미래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인간의 정책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으며 언제나 피해를 입는 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미성년 난민들에게 영원한 소망의 닻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려주시옵소서.

#### 파키스탄 기독교 여성 ‘사형선고 철회’ 청원에 자국민 54만 명 참여

파키스탄에서 이웃 무슬림 여성에게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날 위해 죽으셨는데, 무함마드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라고 물었다가 신성모독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한 기독교인 여성의 선고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서에 54만 명이 참여했다고 최근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보도했다.

파키스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녀의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 파키스탄에 복음의 열매가 충만히 맺히게 하옵소서.

#### 멀어진 호주 동성결혼 합법화…상원, 국민투표안 부결

호주 연방정부가 추진해온 동성결혼 찬반 국민투표가 야권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고 7일(현지시간) ABC방송이 보도했다. 호주 상원은 7일 밤 표결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내년 2월 동성결혼 국민투표안을 33대29로 부결시켰다. 이번 결과로 정부의 현재 입장대로라면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는 2019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열방이 무너지는 일들 앞에서 단비와 같은 소식을 접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명들에 온전히 순종할 때, 인간은 참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교회가 부패한 세상을 지연시키는 소금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GNPNEWS]

##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16년 11월 3주 ~ 11월 4주

- |                                      |  |
|--------------------------------------|--|
| <b>11월 3주(11.21~11.26)</b>           | <b>12.1~2(07시~19시)</b>   |
| 11.21~25(07시~23시)                    | ▶ 전북 전주 / 전주시향교회 (정**) 010-8295-6889                                     |
| ▶ 강원 강릉 / 은강교회 (박**) 010-7439-7020   | <b>12.2(08시~20시)</b>   |
| 11.24~25(06시~18시)                    | ▶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정**) 010-7163-3949                                     |
| ▶ 전북 전주 / 전주사론교회 (진**) 010-2638-1440 | <b>12.3(06시~18시)</b>   |
| 11.25(08시~20시)                       | ▶ 서울 관악 / 신림감리교회 (강을수) 02-853-9191                                       |
| ▶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정**) 010-7163-3949 |  |
| <b>11월 4주(11.28~12.3)</b>            | <b>기도참여 문의</b>   |
| ▶ 경기 성남 / 선한목자교회 (김희락) 031-750-1009  | 기도24:365본부 느헤미야52팀 ☎ 070-4803-9026~7, 010-4192-4365) www.prayer24365.org |
| ▶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 (강은선) 061-271-9981  |  |

# “종교개혁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는 것”

**오직 성경**  
**“오직 성경만이 한국교회를 바꿀 수 있다”**(딤후 3:13~17)  
 /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내년이면 종교개혁 500주년이다. 한국교회는 교회사의 모든 것을 경험했지만, 단 한 가지 교회개혁만은 경험하지 못했다. 개혁을 위해 성경을 붙들어야 한다. 성경대로 믿고, 살고, 기도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교인들은 성경말씀보다 체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성경을 아는 것과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는 의식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다. 극복되어야 할 과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했다. 한국교회가 성경에서 목회를 배웠다면, 성경대로 목회를 했을 것이고, 그랬더라면 2000년이 흐른 지금도 한국교회는 성경 속의 교회와 전혀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종교개혁은 속죄의 복음에 머무르지 않는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다. 성경이 옛사람의 죽음을 너무나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생소하게 여긴다. 여전히 ‘나는 안 죽었다.’고 말한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믿음의 문제이지 느낌의 문제가 아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만이 한국교회를 바꾼다.

성경은 또한 기도를 변화시킨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분명한 약속 위에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한 가지 약속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지금이야말로 목숨을 걸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할 때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서야 한다”**  
 (할 2:4)  
 / 임석순 목사(한국중앙교회)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오직 믿음이였다. 그리스도인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 광야의 삶을 청산하고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 그렇다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평생 이 시험을 받고 산다. 사탄의 시험은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

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못 믿게 한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다. 말씀의 내용은 십자가 사랑이다. 이것을 사탄이 흔들지 못하게 하라!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신다. 예수를 닮아가는 목표를 가지고,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따르라.

지금 한국교회는 가진 것들을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우리가 의존했던 것에서 빨리 내려와야 한다. 가나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의 종교개혁은 날마다 일어나야 한다. 매일 싸워야 한다. 매일 개혁되어야 한다. 매일 오직 믿음으로 서야 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70년간 황폐하게하신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위함이었다. 지금은 나 자신과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주여! 이 땅의 교회가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어서 돌이키시옵소서!

**오직 은혜**  
**“은혜 받은 자의 소원, 주님과 함께 하는 것”**(마 18:21~35)  
 / 박종진 선교사(복음기도신학교)

기독교는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다. 은혜란 하나님의 선택이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리고 예정하신 자를 성자 하나님이 구속하셨다.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 받는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만 은혜를 찬양할 수 있을 뿐이다.

은혜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 일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백 데나리온 빛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목을 잡고 빛을 갠다고 협박했다. 그에게 은혜는 실체가 되지 못했다. 문제는 해결 받았지만 그의 옛사람은 처리되지 못했다. 왜 이 종의 삶은 변화되지 않았을까? 이론적으로는 은혜를 좋아하지만 실제로는 거부하기 때문이다.

은혜는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은혜가 삶으로 드러나려면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처리되어야 한다. 감사하게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처리하셨다. “갠 것이 없는지라”(마 18:25). 갠 것이 없는, 철저한 무능의 자리에서 있는가? 하나님의 선고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은혜의 삶은 애쓰는 삶이 아니다. 은혜의 삶은 마땅한 삶이다. 은혜가 정말 실체가 되었다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 사진 왼쪽부터 유기성 목사, 임석순 목사, 박종진 선교사, 김관영 목사, 김용의 선교사

마땅한 삶이다. 지금 한국교회는 은혜를 잃어버렸다. 왜 은혜를 잊었을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제나 자격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선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이곳에서 있을 뿐이다. 르비보셋의 기쁨은 다윗의 얼굴을 보는 것이었다. 왕의 귀환이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 자들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 이것이 은혜받은 자의 기쁨이요, 소원이다.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는가? 그렇다면 삶으로 나타날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릴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성도의 모든 상실은 유익”**  
 (갈 2:20, 빌 1:21)  
 / 김관영 목사(문화행동아트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은 처절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가 언제나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 절박한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 더욱 절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순간 절박할 수 없는 우리를 발견한다는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신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이야! 너의 절박함도 내가 아니고 나야!” 우리의 절박함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생명이다(갈 2:20). 더 이상 율법과의 관계에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삶이 구원받은 삶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 수 없고, 여전히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살아간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현재진행형으로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십자가 복음 외에 구원이 없다. 생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생명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된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생명이 있을 수 없다.

바울에게 압도적인 현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 너무나 많은 현실들을 지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압도적인 현실이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상실은 유익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사실이 점점 뚜렷해지기 때문이다. 질그릇 속의 보배를 드러내는 유일한 길은 질그릇이 깨지는 것이다. 자신을 깨뜨리는 것이 개혁이다.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될 것이다(엡 1:10).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 복잡하고 어지러운 교회가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종교개혁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는 것”**  
 (엡 1:3~14)  
 / 김용의 선교사(순회선교단)

세상에 길들여진 인생에게 ‘평범한 삶’이라는 유혹은 떠나고 싶지 않은 터이며 떨치기 어려운 유혹이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다. 진리를 따라, 하늘에 속한 삶을 사는 성도에게 보편의 삶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주님을 따르려면 삶의 변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진리로 초청 받을 때 세상이 전부인 사람은 절대 따를 수 없다. 누가 그 초청에 응답할 수 있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

에 사로잡혔는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를 지으신 주님의 목적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것 중에서 ‘나를 만드신 것’보다 더 놀랍게 드러난 영광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 의 뜻이다.

날 구원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다. 단지 불쌍한 영혼을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함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은 결코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신다. 세상은 주의 영광을 보아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죽은 옛 자아의 어떤 흔적도 남기지 말라. 거룩한 열정으로, 순애보의 사랑으로, 생명 바친 사랑과 순정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된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순결한 영성이다.

교회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바라보라. 영원히 회복되어 주님의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대상으로서 영원히 누릴 영광을 바라보라. 종교개혁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는 것이다. 이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지.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의 현장으로 가자. 그 날의 영광을 볼 때까지. [GNPNEWS]





선교 통신

# “선교현장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온전한 기도’입니다”

날마다 새롭고 놀라운 것에 관심이 가는 우리 본성에 비하면 제가 있는 크로아티아 선교현장은 그저 크고 잔잔한 호수와 같습니다. 누군가 크고 작은 조약돌을 던지지만, 곧 이내 평온을 유지하는 호수처럼, 차분하고, 조용하며, 어떨 때는 지루할 정도로 따분하여, 인내와 끈기를 요구하는 곳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무엇인가로 인해 그리 놀라지도, 반기지도 않습니다. 이미 다 아는 것이요, 경험한 바요, 나름대로의 소신과 신념 가운데서 스스로 판단하여 선택할 뿐이지요. 복음조차 그런 것이 되어버리고 만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주의 거룩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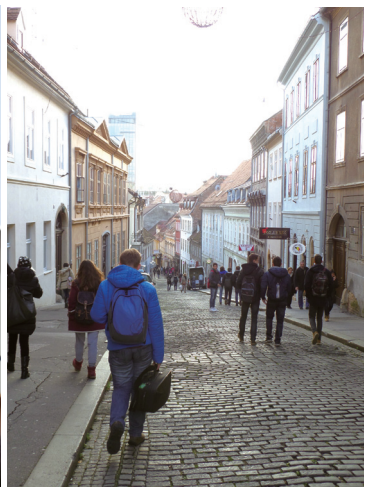
요즘 저는 마테이와 마리나라는 젊은이들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마테이는 며칠 전 종교철학 학사를 마쳤고, 이제 신학 석사를 공부하

는 과정에 있습니다. 마리나는 마테이의 여자 친구입니다. 둘 다 순수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속한 가톨릭에서 주는 혼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들과 만나면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눌 때 언제나 그들 속에 있는 혼란을 봅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진리의 말씀과 대치되는 가톨릭의 가르침 속에서 그들은 고민하고 때로는 낙심합니다. 그래서 저와의 만남은 이내 성토의 장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함께 복음을 나눌 때면 그들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와 기쁨이 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들이 현지 교회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저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격려와 세움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만을 의지할 뿐이지요. 선교를 진행해 오는 동안 이곳에서 배우는 것은 리더십도 아니요 카리스마도 아니요, 선동도, 한바탕



▶ 크로아티아의 한 교회에서 예배 중에 청소년들이 특별찬양 하는 모습(왼쪽)과 도심 거리의 한 장면



의 열정도 아닌, 오직 인내와 겸손과 온유와 오직 기도 밖에 없다는 것을 새삼 또 깨닫습니다.

근래에 제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것은 ‘온전한 기도’입니다. 오랜 시간 선교지에 있으면서 기도보다 사역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늘 분주했던 마르다가 나

자신이라는 것을 더욱더 절실히 알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시기 원하셨는데, 저는 교제보다 일에 분주하며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께서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을 조금씩 저에게 맛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다시 무엇이 진정 중요한지 깨닫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온 우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평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GNPNEWS]

크로아티아 김경은·문정미 선교사

복음과 기도미디어  
gospel&prayermedia

## “미스바로 모이라” New 오디오CD 발매

우리 세대에 그날의 영광을 주소서!

오디오CD-**A** B 김 용 의 선교사  
Track 1 (00:00-28:11)  
Track 2 (28:11-54:48)  
GNM-029CA

**부흥이란?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하나님 그분만 구하는 것!**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삼손. 정욕에 눈이 멀어 머리가 깎이고 두 눈이 뽑혀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던 그는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짓밟히고 있던 그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시 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고자 했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마침내 드러났다. 그날의 영광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만 가능하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의 영광을 구하자.

메시지가 CD 2장에 수록되어 있으며, 30분씩 4개의 트랙으로 편집,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디오CD(2장 한세트) 6,000원

---

## 복음의 삶을 위한 소식지 시리즈

Life in the Gospel

이제 당신은 어디로 가나요?

무엇을 어떻게 간절하게 기도할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로마서 10:15)**

이 전도지는 누구든지 읽고,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열 수 있는 짧은 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손쉽게 들고 다니며 복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전도지 규격 : 182X157mm(B5사이즈)  
가격 : 100매(5,000원) 이상 주문 가능

구입문의 **야긴과 보아스 032-887-0235** [www.jakinnboaz.co.kr](http://www.jakinnboaz.co.kr)

복음과 기도미디어  
gospel&prayermedia

## 진정한 부흥은 한 사람의 심령의 부흥에서 시작된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한 해 앞둔 이때,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듯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경건의 열망’을 소망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

하루에 한 주제씩  
총 150일 동안 연속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정보집 5권

날권 세트(케이스 포함) : 8,000원

5권을 통합한 단행본 출시  
통합본 : 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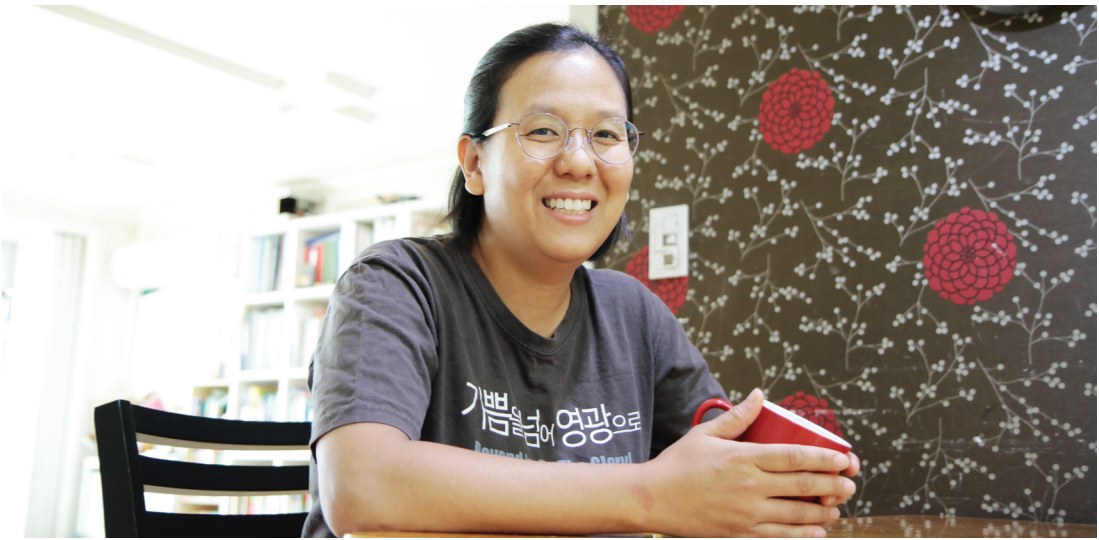
구입문의 **야긴과 보아스 032-887-0235** [www.jakinnboaz.co.kr](http://www.jakinnboaz.co.kr)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 “주님의 공의가 세상에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 복음을 외치는 거룩한 통로를 꿈꾸는 전소정 집사

한때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치를 통해 개선해야겠다고 꿈을 꿔다. 그러나 지금은 여섯 아이의 엄마로 가정에서 믿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자리에서 잘못된 법안들이 통과 되지 않도록 기도하며 막아서며 세상권세와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는 전소정 집사(은누리교회)를 만났다.



- 어떻게 정치인의 꿈을 꾸게 되셨나요?

“그 꿈은 제가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사회문제에 점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 문제들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을 조사하면서 더욱 흥미를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다 한 사건을 조사하게 되면서 내가 이렇게 아니라 대학원에 진학해 정책을 더 공부해서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 어떤 사건이었죠?

“1990년 초에 있었던 레이온사건이예요. 인조섬유인 레이온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안전설비 결여로 직원들이 이산화탄소(CS2)에 노출되어 치명상을 입어 결국 사망한 사건이었어요. 이 일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친정어머니를 통해서였어요. 어머니가 원목으로 섬기시던 병원에 레이온사건의 피해자들이 입원해 있었는데 그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며 제게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하셨죠. 그 얘기를 듣고 조사하면서 죽어가면서도 투쟁할 수밖에 없는 사연들과 그분들의 말로가 어떤지 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면서 복지에 관련한 정책안들을 제시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 사회복지 전공하며 열악한 현실세계에 눈떠

- 계속 그 꿈을 꾸면서 준비하셨나요?

“대학원에 진학하고 한껏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노인복지 시설에서 근무하며 지금 남편을 만나 결혼하는 바람에 꿈을 접어야 했어요. 꿈을 포기해도 아쉽지 않은 행복한 결혼생활이었으면 좋았으련만 그렇지 못했어. 시댁은 다른 종교를 믿는 집안이였어요. 남편도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남편을 기독교 복지단체에서 만났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줄 알았는데 아니었죠. 결혼하고 5년 정도 시댁에 살았는데 시아버님이 저에게 서양귀신을 믿는다며 한 집안에 종교가 둘이면 재수 없다고 하나님을 포기하라며 저를 많이 핍박하셨어요. 이 문제로 남편에게 맞기도 했어요. 결혼 생활은 매우 불행했고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자꾸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무려 여섯 명이나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포기하려 할 때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았더라면 저희 가정은 지금 없었을 거예요.”

-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야겠네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결혼생활은 좀 나아지셨나요?

“아니요. 믿는 여자와 믿지 않는 남자가 만나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많았겠어요. 더구나 남편의 가정폭력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결혼하고 7년 정도 되던 어느 날 남편이 살림을 다 부수고 저를 때리는 통에 친정으로 도망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때 남편이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다 내가 내 가정을 해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신을 믿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남편이 저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보자. 네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남편은 결혼 7년 만에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네요.

“남편과 함께 교회에 나가면서 부부가 연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평온한 시간은 잠시 또 하나의 고비가 찾아왔어요. 시아버님이 대장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버지가 천국가야 되지 않겠냐면서 신앙이 있는 제가 말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아버님이 저에게 하신 일들이 생각하면서 이 상황을 받기 어려웠어요. 그래도 이 기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아버님 병수발을 하게 됐어요. 그때 넷째 아이가 태어난지 9개월 정도였어요. 제가 병원에 가서 저녁에 돌아올 때까지 아이는 하루 종일 보리차만 먹고 있기도 했어요. 다른 가족들은 물론 시어머니조차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을 지내니 도저히 못하겠더군요. ‘평생 예수님을 믿었지만,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나? 더 이상 못하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교회의 한 지체로부터 ‘복음학교’를 소개받았어요.”

- 복음학교가 뭐가요?

“한 주간 복음의 진리를 배울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신앙훈련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때는 저도 몰라서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복음학교에 가면 뭘 하냐고 물었더니 복음을 듣는다고 하더군요. ‘다 아는 복음인데 일주일 동안이나 뭘 듣느냐고 물었죠. 그런데 문득 제 영혼 깊은 곳에서 늘 해결되지 않던 질문이 생각났어요. ‘거기 가면 예수님이 나와 상관있다고 정확히 말해주나요?’ 지체가 ‘그렇다’고 했어요. 그래서 복음학교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 시아버지 병수발 한계 상황에서 십자가 복음 만나

- 어떤 은혜가 있으셨나요?

“모태신앙이었지만 그때 복음을 만나게 되었어요. 복음을 듣고 보니 예수님은 저와 정말 상관있는 분이셨죠. 돌이켜보면 시아버님이 제가 복음을 만나게 된 통로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제 마음에 절망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이후로도 1년간 아버님을 더 모셨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부르면 되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아버님은 예수님을 부르며 하나님 품에 안기셨고 시어머님도 ‘내가 아프면 나를

모실 사람은 소정이구나.’하시면서 신앙을 갖게 되셨어요. 지금은 세례도 받으시고 교회에 잘 나가고 계세요. 하나님은 아버님을 통해서도 변화시키셨지만 40년 넘게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어머님도 구하셔요.”

- 하나님의 경륜이 참 놀랍네요. 이제 어려운 일은 다 지나간 듯 보이네요.

“네. 맞아요. 어느덧 다섯째가 유치원에 들어가면서 주님이 주신 다섯 자녀를 키웠으니 앞으로 저의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할수록 우리나라의 정책들이 반성경적인데 주님을 믿는 자로서 올바른 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대학원에 복학해 공부하며 구의원으로 출발해 주님의 공의를 외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마침 남편도 동성에 반대집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저를 보면서 정치를 해서 당당하게 소리를 내보라고 권하더군요. 저도 워낙 동성애 문제나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반대서명운동을 하고 1인 시위 등을 해왔던 터라 야심차게 1년을 기도하고 준비했죠. 그런데 예상치 않게 여섯째를 임신하게 됐어요. 내 생각이 주님의 뜻이 아니었나? 의구심이 들었어요. 몸도 마음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복음과 가정’이라는 신앙훈련을 받게 하셔요. 그 훈련에 참여하면서 주님이 저를 왜 다시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부르셨는지 보게 되었어요.”

-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주님은 그 훈련을 통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가정으로 부르셨음에도 아이들을 키우는 일이 제게는 재미가 없었죠. 사사기에 나오는 드보라처럼 큰일을 하고 싶었어요. 장막에서 살림을 하며 사는 야엘은 싫었

어요. 그런데 주님은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무능력해 보이는 가정주부가 정치인보다 얼마나 더 어마어마한 사람인지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저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나라의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주시고 계세요. 정치인에 대한 꿈이 실현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 사회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미 대선 기사를 보면서도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현실을 보면서도 어떻게 기도해야할지 알 것 같아요. 주님이 저에게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신 건 제가 사회와 열방을 위해 밝히 알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조치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다보면 실제로 불의를 반대하는 자리에도 가게 돼요.”

### 기도하다 보면 불의에 맞서게 돼

-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세요.

“저는 동성애문제에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믿는 자가 마지막 때에 싸워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것에 대해 조사하다보니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알게 됐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말도 안 되는 법들이 통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학생인권조례안이나 시민인권헌장이 통과되려고 할 때 시청 앞이나 교육청 앞에서 시위도 하고,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어요. 이런 조례안들이 통과될 경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상되기 때문이에요. 그중 어떤 것은 부결됐지만, 또 어떤 내용은 통과되어 이미 시행되는 것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나요?

“어느 날 제가 아들이 잘못된 일이 있어서 막대기로 몇 대 체벌을 하였는데, 곧장 ‘엄마, 인권을 무시한 가정폭력에요. 신고할 거예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정폭력이 심하면 신고해도 된다고 하셨다면서요. 인권을 존중하자는 교육의 결과였어요. 그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한참을 이야기해야 했어요. 결국 이 학생인권조례안은 교내 집회의 자유, 성적 지향과 임신, 출산에 따른 차별금지에 대한 조항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생이 임신을 해도, 교내에서 동성애를 해도 학교 내에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6면에 계속>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소망의 복음(4)

## 경건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역사에 존재했던 어떤 제국도, 어떤 이데올로기(Ideology)도 인간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 반드시 타락했고, 억압과 불평등이 있었고, 죄악을 막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과 정의의 나라요, 완전한 평화(Shalom)의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임재의 영광이 있는 곳이다. 다윗이 그토록 열망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 찾아오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를 그토록 기다렸다. 하지만 다윗은 생전에 그분을 보지 못했다.

400년의 친구와 암흑기가 지나고, 완전한 절망의 켄터미 위에, 드디어 만왕의 왕, 메시아가 오셨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셨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

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눅 2:14)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마 1:23)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것이 최고의 비극이었다면 인간을 구원하는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생명의 근원을 얻게 된다. 우리가 찾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없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허상에 불과하다. 모든 것을 되찾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동(東)과 서(西)의 개념보다 더 먼 개념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이다. 하나님의 거

룩한 빛 앞에 서면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 거리를 메울 수 있는 비밀은 ‘경건’이다. 죄인에게 가장 불가능했던 ‘경건’을 이루시기 위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인생과 역사 속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잠깐의 방문이 아닌 영원한 동거(同居)와 연합(聯合)의 비밀 곧 ‘임마누엘’로 이루셨다.

다윗이 그토록 꿈꾸던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임마누엘’로 드러났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세운 성전으로도 부족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은 모양만 남아 있었을 뿐, 강도의 굴혈(窟穴)이 되어 있었다. 기독교라는 종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모든 장벽을 십자가로 헐어 버리시고, ‘경건’의 비밀을 완성시키셨다.



경건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

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 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딤후 3:16)

경건의 비밀을 다 이루시고, 이제 믿기만 하면, 천하에 불가능했던 경건 곧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다.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던 영성과 주님의 임재의 영광, 그리고 그토록 두려워하던 저주와 심판을 끝내셨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토록 완전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건의 비밀로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자!(2016.2 메시지 정리) <계속>[GNPNEWS]

김용의 선교사(순회선교단)

### 다림줄 (16)

##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선거에 참여해야 하는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기준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가? 최근 미국 대선 직전, 미국의 존 맥아더 목사(사진·그레이스 커뮤니티교회)가 11월6일 주일 설교 중 그리스도인들의 정치참여와 성경적 기준을 제시했다. 이날 메시지를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많은 사람들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한 나의 의견을 끊임없이 물어온다. 내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선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대통령은 누가 되어도 상관없다.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 생기는 일은 없다. 나라는 있다가 없어진다. 대통령도 왔다 사라지고, 정치가도 그렇다. 흑암의 왕국은 자기 식으로 행할 것이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왕국과 상관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에 덕을 끼치지도, 해를 끼치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성도인 당신이 끼치는 영향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도의 길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 어떤 정치가나 대통령보다 더 중요하다. 현재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타이타닉호’와 같다. 이 배는 침몰하고 있다. 우리들의 책임은 갑판의 의자를 재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구명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이다.

### 정부는 선한 사람을 보호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선거를 대해야 할까? 하나님께서는 인간 정부를 세우시고 두 가지 궁극적인 권위를 주셨다. 선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악한 사람들을 벌하는 것이다(롬 13장). 그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우리가 개인이 아닌 대통령 후보를 대표하고 있는 정당에게 투표한다는 것이다.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목적과 반대되는 세속적이고, 힘 있고, 사회적인 정당 조직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민주당이 지향하는 정치적 방향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정부와는 정반대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6000만 명의 아기들이 엄마의 자궁 속에서 살해당했다. 이제는 정당의 공약으로 임신 6개월부터 태어나기 직전까지의 낙태를 추진하고 있다. 결혼과 관련한 문제도 있다. 민주당의 정책은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정부를 뒤집는 것이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결혼과 가정

을 파괴하는 자들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을 벌하는 정당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생명의 과멸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 나라를 이교적인 가치로 바꾸려는 단체를 대표하는 인도자를 옹호할 수 있는가? 성경적인 진리가 설 자리가 없고, 성경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모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교회를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것들을 지지할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항하는 투표를 해야 한다. 단순히 다른 후보자에게 표를 던지는 것이 아니다. 어느 누구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는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기회이다.

나는 영적인 핍박이 두렵지 않다. 우리는 그것이 올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의 미약한 방법으로 성경의 진리, 교회, 복음 선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직적인 공격을 반대할 수 있다면 나는 그곳에 내 표를 던질 것이다. 나는 생명의 편에 서겠다. 결혼, 가족, 자녀, 진정한 도덕적 가치, 정의, 법의 규칙. 이러한 편에 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이 선거를 과대평가 하지 말라. 행복하고, 감사하고, 당신의 아내를, 남편을, 자녀들을 사랑하라.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하나님은 아무것도 잃지 않으신다. [GNPNEWS]

<5면에 이어>

Interview

### “세상의 흐름을 분별하여 기도하고 싶어요”

- 정말 상황이 심각하군요.

“지금 국회 인터넷 사이트에는 말도 안되는 법안들이 만들어져 국민들의 찬성, 반대 의견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곳에서 국민들의 찬성을 얻은 법안은 국회에 상정되어 심의를 거치게 돼요. 이상한 법들을 막아실 필요가 절실하지만,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예요. 동성애를 지지하고 그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것을 막고 진리를 지키는 일에 참여하는 분들은 정말 소수인 것 같아요. 잘못 생각하는 정치인들 몇 명만 있어도 이런 법들이 쉽게 통과된다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사는 지역에서 동성애자임을 밝힌 연예인이 구의원을 준비한다고 들었어요. 과연 그런 사람들이 정책을 만든다면 어떤 법을 만들까요? 정말 기도하며 진리를 외칠 사람이 정치계에 필요해요.”

- 그런 정치인이 있나요?

“그럼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생명을 걸고 싸우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치를 한다는 것은 바로 세상 끝에 있는 열방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인 것 같아요.”

▶ 주님 주신 풍성한 여덟식구의 모습.

요. 무섭고 두려운 게 사실이지만 모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길을 걷고 계세요. 저도 세상의 흐름에 더욱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며 외치는 그 한 사람이고 싶어요.”

- 마지막으로 기도제목을 나눠주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가정이라는 장막에서 말씀과 기도가 전부인 삶으로 더욱 나아가고 싶어요. 비록 우리 가정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것뿐이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달려가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세상 한복판에 있는 믿는 자들이 자신이 믿는 바를 세상에 담대히 외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세상의 공격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거룩한 통로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GNPNEWS]

Y.K.





# “다른 사람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받을 수 없었던 복음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기도. 은혜로만 복음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통해 '나'라는 사람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매순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제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저를 부인하는 길이라고 하십니다. '나를 부인하는' 이 일은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알게 하십니다. 제가 주님께 한 믿음의 결단도 너무 연약하여 쉽게 무너지고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 아주 작은 일이었지만 저를 부인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을 기르고 싶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일은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 여겨져 더 이상

“  
고양이를 키우지 못하게 되자  
그 동안의 감정들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놓렸던 감정이었지  
복음이 실제되어  
산 것이 아니란 것을  
보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 그런데 아는 지인이 키우던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다며 제게 키우겠냐 물었습니다. 최근 제 마음이 느슨해져 있던 터라 순간적으로 그러겠노라 대답하면서 아차! 싶었습니다. 고양이를 키우게 되면 주님께 집중이 안 될 것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키우지 못하겠다는 말을 전



해야 했습니다. 저의 욕구에 눈이 멀어 대답을 해놓고 번복해야 하는 상황이 미안했습니다. 결국 어쩔 줄 몰라 하는 저를 보시던 어머니가 전화를 대신해 주셔서 고양이를 분양받지 않는 일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 일로 그동안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감정을

놓렸을뿐, 복음이 실제되어 산 것이 아니었음을 보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해도 안 되지?'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부인할 수 없는 진리는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일상에서 계속 보게 됩니다.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겉보기에 그럴싸한 모습이 아무것도 없지만 기쁩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과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이면 충분하고, 복음이 전부라는 것이 실체가 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고 싶은 것 할 수 없고, 갖고 싶은 것 가질 수 없어 복음을 알기 전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가?' 아니오,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돌아가기 싫습니다. 넘어지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죄인을 아시는 주님이 저를 일으켜 주신다는 희망이 있기에 저는 감사합니다. 계속 주님의 율음 앞에 저의 그림이 굴복되도록 기도예,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GNPNEWS]

김보라

## 부흥을 위하여

### “늘 갈급한 것은 성경이었습니다”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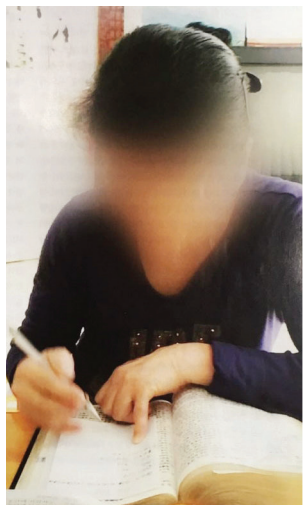
#### 한 북한 성도의 이야기

처음 북한의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가는 길은 아니었지만 매년 무섭고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일이 나에게는 여러 번째였지만 그래도 매번 상황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열심과 약속은 비밀 속에서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 조금은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번번이 가지고 들어가는 성경의 양에 늘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과거 목사님으로부터 배웠던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써 왔습니다. 북한 성도들에게는 함부로 세례를 주는 법도 없고, 아무나 성찬식에 참여시키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 매번 무섭고 두려운 탈북

결혼은 서로가 기독교인이 아니면 불가한 것이 원칙입니다. 외모를 보지 않아야 함도 원칙이기에 때때로 아픔도 따릅니다. 장님이나 절름발이와 결혼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를 위하여 핏



▶ 성경을 사모하는 북한 성도들의 모습(출처: 모퉁이들선교회).

박을 받는 것을 당연시 하였기에 환난이라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주님의 회복하심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늘 갈급한 것은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의 기억력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괴로웠습니다.

우리들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외우던 만큼 찬송을 외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곡을 외운다 해도 소리를 내서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몹시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많이 틀리기도 했습니다.

때때로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습니다. 찬송을 가르친다고 가르치는

데 마지막 부분쯤 가면 이미 노래가 끝나 버리고 가사만 남아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 남한을 위해 기도하다

우리는 형편에 따라 모였습니다. 장소나 시간 그리고 모이는 숫자는 언제나 달라야 했습니다. 때로는 눈짓으로 안부를 전하는 게 고작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필요를 알았기에 가능한 대로 기도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산속에서 가끔 모임을 가졌는데 그럴 때마다 중요한 기도제목이 있었습니다. 남한의

정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중국에 건너가서 성경을 가져와야 하는 날입니다. 찢어서 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나누어 보는 것도 어려워서 기도한 후에 내가 선택되어 중국으로 사명을 가지고 보내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앞서지만 골고다 언덕의 예수님을 생각하며 조용히 찬송을 부르며 금방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웬지 천사들이 옹호한다는 자신감도 생깁니다. [GNPNEWS]

<출처: 붉은 예수쟁이(문광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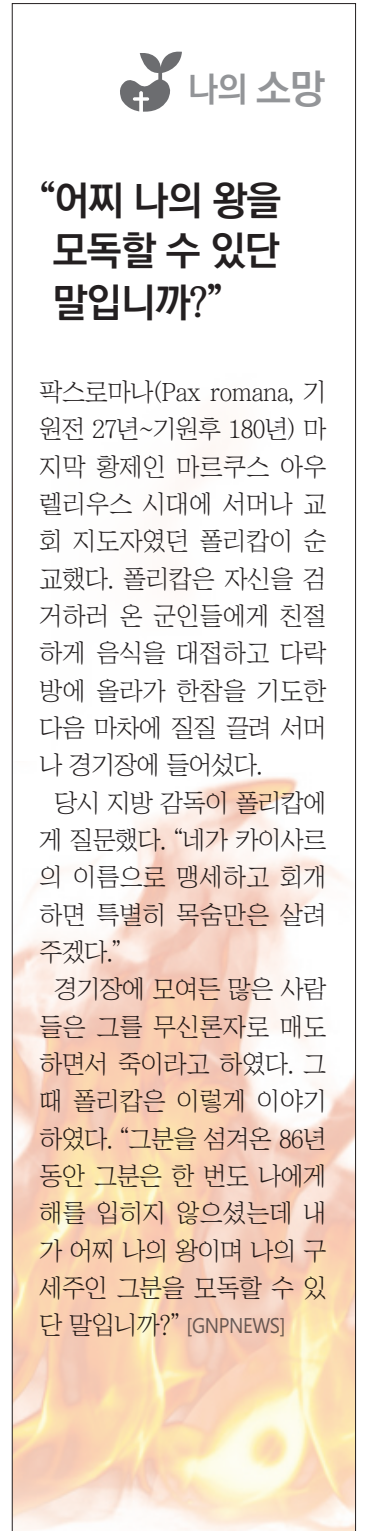
## 나의 소망

### “어찌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단 말입니까?”

팍스로마나(Pax romana, 기원전 27년~기원후 180년) 마지막 황제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시대에 서머나 교회 지도자였던 폴리캅이 순교했다. 폴리캅은 자신을 검거하러 온 군인들에게 친절하게 음식을 대접하고 다락방에 올라가 한참을 기도한 다음 마차에 질질 끌려 서머나 경기장에 들어섰다.

당시 지방 감독이 폴리캅에게 질문했다. “네가 카이사르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회개하면 특별히 목숨만은 살려 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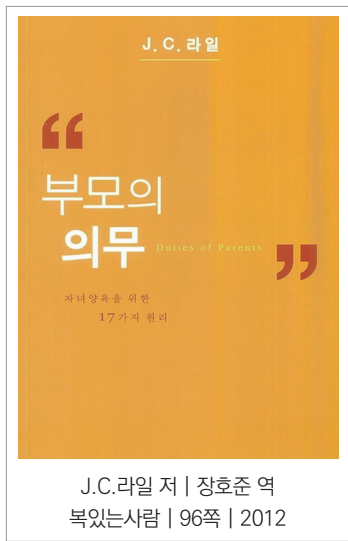
경기장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은 그를 무신론자로 매도하면서 죽이라고 하였다. 그때 폴리캅은 이렇게 이야기 하였다. “그분을 섬겨온 86년 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에게 해를 입히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나의 왕이며 나의 구세주인 그분을 모독할 수 있단 말입니까?” [GNPNEWS]



뷰즈인 북스 Views in Books

<부모의 의무> 자녀양육을 위한 17가지 원리

# 부모는 자녀들이 눈과 귀로 배우는 학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자녀를 맡겨주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 청교도 개혁주의자인 존 라일은 “부모는 하나님을 눈과 귀로 배우는 자녀들의 학교입니다.”라고 외치고 있다. 17가지 자녀양육의 원리를 담은 이 소책자는 부모들이 결코 간

과할 수 없는 성경적 태도와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저자는 아이가 어려서 설득이나 충고, 훈계를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부모의 삶’을 통한 가르침은 분명히 알아듣는다고 말한다. 아이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대로만 양육하는 것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가장 행복하고 화평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아이들이 십자가로 거듭난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아이들이 아무리 착하고 순종적이고 모든 면에서 칭찬 받는다고 해도 그렇다. 그 끝이 하나님 나라에 닿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의 요구를 거부하고 진리만을 따르는 삶은 좁고 외로운 길이지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시오.’(To do)라는 지침은 사실 ‘부모들이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To be)라는 강력한 권면이다. 이는 하나님께

서 부모를 생명의 열매 맺는 삶으로 부르셨음(The call)을 입증하는 원리이다. 나에게 실제 되지 못한 말씀, 내가 누리지 못하는 복음은 결코 아이들에게 생명으로 흘러갈 수가 없다.

### 아이들은 부모의 삶을 알아듣는다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먹고, 입히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 노릇의 전부는 아니다. 이미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주신다. 부모의 진정한 의무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먼저 삶의 증인이 되어 주는 것이다. 복음이면 얼마나 충분한지. 기도가 어떻게 능력이 되는지. 매일 묵상하는 말씀이 하루를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실제인지. 단지 말이 아닌 부모의 삶으로 살

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통로로 서야 하는 것이다.

내가 무릎 꿇지 않으면서 아이들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할 수 없다. 내가 말씀 앞에서 충분히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말씀대로 살 것을 가르칠 수 없다. 내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기를 기대할 수 없고, 나는 감사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의 불평을 탓할 수 없다.

나의 노력과 수고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을 믿음의 다음세대로 세울 수 있는 지혜와 인내, 분별력을 주시도록 날마다 주님께 간절한 기도로 의탁해야만 한다. 더 이상 세상의 이론과 유행에 기대어 이 땅에서 칭찬받고, 자녀들이 흠족해하는 것에 만족하는 어리석은 부모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벌하실 때 그 본심이 진노

가 아닌 더 깊은 사랑임을 믿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도 역시 자녀들을 그냥 응석받이로 받아주고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으로 그칠 수는 없다.

자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쁨의 단을 거둘 때를 기대하고 있는가. 곧 맞이하게 될 세상 끝 날에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을 기대하는가.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자. 살아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마땅히 행할 그 길을 보여주자. 어렸을 때부터 삶으로 배운 살아 계신 하나님과 그 나라의 생명 된 원리는 아이들이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지지대가 될 것이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 22:6) [GNPNEWS]

이규영 선교사



###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 “콩다리 같은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육수로 만드셨어요”

오늘의 메뉴는 콩나물국입니다. 120인분의 콩나물국을 끓이기 위해 먼저 육수를 준비합니다. 여러 요리에 쓰고 남은 무 콩다리, 파 콩다리, 버섯 콩다리, 멸치 등을 넣습니다. 펄펄 끓는 솥단지 안에서 모양도 없이 이리저리 뒤섞여 끓고 있는 무와 파들을 보면서 콩다리가 문득 나와 참 많이 닭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기독교 주방 교육선교사로 헌신

저는 올해로 71세를 맞은 할머니 권사입니다. 이 나이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저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님은 저를 다음세대 선교사로 양육하는 기독교 주방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도 이곳 학생과 교사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교육선교사로 말입니다. 사실 저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 언니가 늘 반찬을 해다 주어야 할 정도로 저는 형제 중에 음식을 가장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식단을 짜고 요리를 해야 하는 자리로 부르심을 받고 보니 오직 할 것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곳에 오기 전에도 기도원 주방에서 5~6천 명의 식사를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기도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었

습니다. 저는 음식을 준비할 때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어떻게 하죠? 주님, 맛을 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시고 써서 먹을 수 없는 묵은지도 무르지 않고 아삭하게 하셔서 아이들이 밥도둑 반찬이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무능한 콩다리 같은 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는 연합하지 못하는 제 실존 앞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곳에 부르심을 받고 무엇을 해도 감사가 넘쳤습니다. 힘이 들어도 음식 재료가 부족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저도 이들과 함께 달려간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벅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저의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복음 앞에서 저의 모습을 비추기보다 상대방의 잘못된 점을 보고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해야겠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생명이 죽었다고 선포하고 나는 죽고 주님만 사시는 믿음으로 살 것을 다짐해보지만 닥치는 상황 앞에 무너지는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생명이 되었다면 지체를 품어야 하는데 품어지지 않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왜 이렇게 사



랑하는 것이 되지 않는지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주님이 제 마음속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습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 열방의 먹잇감으로 사용해주세요

저는 주님과 매우 친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친밀하면서 지체와 친밀하지 않다면 그것은 복음이 저에게 실재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저에게 완성되려면 먼저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하고 이웃과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울며 회개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이 지체에게 다

가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랑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다고, 앞으로 사랑하겠노라고. 그리고 안아주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체가 저의 마음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동안 지체가 저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이 한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사랑 없는 저를 부르셔서 십자가로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펄펄 끓는 육수 안에 담긴 콩다리 같은 저를 부르셔서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를 우려내시고 깊은 맛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육수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콩다리의 형체가 없어질 때까지 저를 드려 열방을 살리시는 먹잇감으로 사용해주시길 기도합니다. [GNPNEWS]

김효영 교육선교사

### 구독신청 안내

아래의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해주세요.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 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 후원자 명단

2016. 10. 11 ~ 11. 9 (가나다 순)

**개인**  
강성민 강주선 김경선 김득기 김민성 김성훈 김유남 김은영 김정대 박숙자 신혜경 안남순 오대현 유지인 이란영 이 순 이정희 이준진 이지영 이진관 이현희 정영숙 조경미 조명숙 조형광 최근희 표순호 한정미 무명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감단교회 겨자씨선교회 군포드림교회 그루터기교회 김포전원교회 김화제일교회 높은뜻하늘교회 마하나임심대교회 모리아선교회 목자교회 산돌교회 새순교회 순화선교회 은혜의샘교회 전능자의그늘미니스트리 죽전교회 진영대성교회 처음사랑교회 평안교회 하원교회

###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7417-0408-10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